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 뉴스 공공 OTT 서비스를 통한 예술영화 활성화 노력
문화·관광 - 휴머니즘 정신으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피렌체시
사회·복지 - 시장의 불공정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격
표시제

환경·안전 -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법적 토대
마련
도시계획·주택 - 에너지 효율 낮은 모든 건물에 리모델링
선언한 파리시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아메리카〉	
<u>미국</u>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규리
	김현철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u>캐나다</u>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u>케냐</u>	
나이로비	한 울
〈오세아니아〉	
<u>오스트레일리아</u>	
시드니	황현정

〈아시아〉	
<u>말레이시아</u>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u>싱가포르</u>	
싱가포르	이지은
<u>인도</u>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u>인도네시아</u>	
자카르타	박재현
<u>일본</u>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u>중국</u>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u>네덜란드</u>	
암스테르담	장한빛
<u>독일</u>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윤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u>스페인</u>	
바르셀로나	진광선
<u>이탈리아</u>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u>프랑스</u>	
파리	김나래
	정연주

공공 OTT 서비스를 통한 예술영화 활성화 노력

인도 케랄라주 / 문화·관광

케랄라주 정부는 지역 예술영상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 주도로 OTT 플랫폼인 ‘씨스페이스(CSpace)’를 개설함. 전문 큐레이터의 추천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자에게 절반의 수익을 공유하여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예정임

정책적 배경

- OTT(Over The Top)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도 또한 1억 2천만 명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5억 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인도 OTT 시장은 디즈니플러스 등 주요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부터 매년 1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기존 OTT 서비스는 인도 발리우드 시장과 결합하며 대규모 상업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상업성이 부족한 예술영화 등의 제작 및 상영은 해당 시장 내에서 전반적으로 소외되었다고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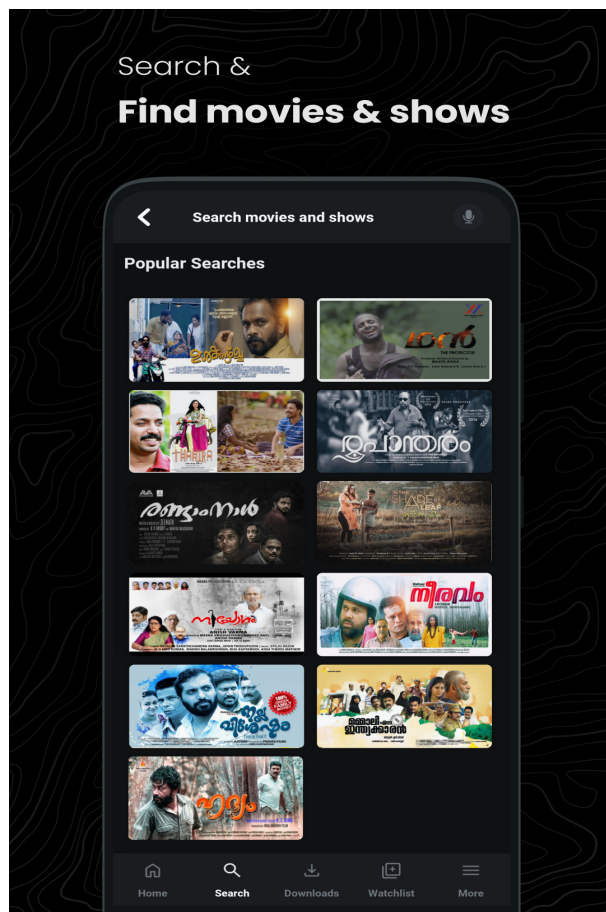
주요 내용

- 케랄라주 정부는 기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 최초로 지방정부 주도의 신규 플랫폼인 ‘씨스페이스(CSpace)’를 올해 3월에 구축하여 5개의 영화, 6개의 다큐멘터리, 1개의 단편영화를 시작으로 서비스를 개시함
- 케랄라주 정부 영화개발공사(KSFDC)가 주도적으로 운영관리할 예정으로, 주요 목표는 기존 OTT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시청자 접근성이 낮지만 예술적 가치가 있는 비상업 예술 영상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상업영화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영화제 수상 영화를 중심으로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예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타 콘텐츠 등이 제공 예정
 - 해당 서비스는 현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음

- 콘텐츠는 지역 문화와 예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큐레이터 60여 명의 추천으로 선정되며 이를 통한 콘텐츠 품질 확보 기대
 - 특히 지역 내 생산 콘텐츠나 관련 문화 홍보영상 등을 별도 탭으로 구분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지역 문화예술 영상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함
- 각 콘텐츠의 시청 비용은 75루피(약 1,200원)로 결정되었으며 운영관리비를 제외한 수익 금액의 절반은 콘텐츠 생산자에게 분배될 예정
 - 해당 수익모델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규모 콘텐츠 생산자에게 공정하게 수익을 분배하는 클라우드 펀딩 형태로도 확장 가능

정책 평가

-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기존 시장에서 소외된 소규모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예술문화 분야를 지원하고 다양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관련 업계에 우호적인 수익모델을 제공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특히 수익의 절반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인해 소규모 창작자들에게도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수요자 측면에서는 기존의 OTT 시장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독립영화 등 비상업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해당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지역 문화 분야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언어, 관습 등을 포함한 지역 고유의 문화양식을 전 세계 시청자와 공유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확산에도 도움이 될 예정
- 해당 OTT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콘텐츠 양이 풍부하고 품질면에서 차별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예술문화와 접목이 가능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 현재 모바일 이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법을 확대하고 월정액 등 탄력적인 요금제도를 운영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그림] 시스페이스(CSpace) 홍보사진 (출처: Google Play)

https://www.business-standard.com/india-news/kerala-s-answer-to-netflix-launch-its-own-ott-platform-called-cspace-124030601212_1.html

<https://www.financialexpress.com/business/brandwagon-india-has-481-million-ott-users-and-102-million-active-paid-subscriptions-reveals-ormax-report-3298029/>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kerala-launches-country-s-first-government-backed-ott-platform-cspace-101709797557837.html>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news/kerala-launches-state-owned-ott-platform-cspace/article67924528.ece>

[https://www.y20india.in/c-space-launched-by-kerala-indias-first-ott-platform/#:~:text=India's%20first%20government%20Downed%20OTT\(Over%2DThe%2DTop,shorts%2C%20films%20or%20other%20content](https://www.y20india.in/c-space-launched-by-kerala-indias-first-ott-platform/#:~:text=India's%20first%20government%20Downed%20OTT(Over%2DThe%2DTop,shorts%2C%20films%20or%20other%20content)

박원빈 통신원, samc21@naver.com

휴머니즘 정신으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피렌체시

이탈리아 피렌체시 / 문화·관광

피렌체시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피렌체시는 여성이 가진 가치를 상기시키고 어려움을 겪는 피렌체 내의 이주민 여성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꾸준히 수립함으로써 성별과 인종을 넘어 휴머니즘 정신을 유지하려고 노력

배경과 목적

- 이탈리아에서 ‘여성의 날’ 의미
 - 여성만을 위한 날이 아닌, 남성과 여성, 외국인과 내국인의 화합이 일어나는 특별한 기념일
 - 여성은 엄마이자 아내이고 딸이기에 여성의 날은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하며 즐기는 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임
 - 이탈리아는 전체 운전자의 남녀 비율이 50:50인 만큼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의 비율이 높은 편
 - 여성이 가진 감수성, 세심함에 가치를 두고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
 - 이민자가 많은 사회에서 여성 이민자는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 이민자와 다르게 사회활동 부족으로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많음
 - 피렌체시는 여성 이민자들을 위한 육아 도움 서비스, 언어 강의, 구직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 이탈리아는 1946년 파시즘에서 해방될 당시 여성 단체들이 큰 역할을 함. 그 이후부터 매년 여성의 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함
 - 이탈리아에서 여성의 날은 국경일만큼이나 큰 의미가 있는 날임
 -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미모사(mimosa)라는 꽃을 여성에게 선물하는 관례가 있음. 미모사는 가장 민감한 종류의 꽃으로 알려졌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꽃임. 연약해 보이지만 내면에 강한 힘이 있는 여성의 모습을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이탈리아는 1940년대부터 미모사를 여성의 날의 상징으로 삼음
 - 1950년 로마에서 미모사 꽃을 형상화한 미모사 케이크가 이탈리아 여성의 날 공식 음식으로 선정되기도 함

주요 내용

- 피렌체시는 여성의 날을 맞아 3월 한 달 동안 여성을 위한 혹은 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
 - 콘퍼런스, 음악회, 영화 상영, 전시회, 세미나, 문학 낭독, 도시 예술 등
 - 두오모(Duomo)에서 무료 음악회로 여성의 날 행사를 시작함
 - ‘변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오케스트라 공연 진행
 - 역사 지구의 시청사 및 궁전 특별 개방
 - 피렌체시가 여성의 날을 맞아 준비한 특별 전시회로 여성들은 무료입장
 - 시청사와 궁전을 특별 개방하여 피렌체 문학 역사에 한 획을 남긴 공작부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설명회를 개최
 - 메디치 가문의 궁전에서는 메디치 가문의 여성들이 남긴 시와 그림을 전시
 - 공공도서관
 - 피렌체의 11개 시립 도서관은 한 달 동안 문학 낭독, 독서 모임, 전시회, 영화 상영 등 30개 이상의 여성 관련 문화 행사를 개최
 - 여성 혼자 여행하는 책과 영화를 함께 감상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 흑인 여성의 결혼, 출산, 사회의 저항 등을 담은 영화를 상영
 - 자연에 영감을 받아 작품 활동을 하는 피렌체의 젊은 여성 예술가들을 초대하여 바다의 생태계, 식물 세계 등 예술 세계를 간접 경험해 보는 시간
 - 엄마이자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여성에 대한 작품을 함께 읽고 토론회
 - 900년대의 이탈리아 여성 작가에 대한 문학 낭독회
 -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세미나
 -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여성들의 삶, 변화를 위해 분투하는 여성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감상하며 여성이 가진 특별한 가치에 대해 공유
 - 피렌체시를 다섯 구역으로 나눠 동네마다 자율적인 다양한 행사 진행
 - 이주민 여성을 위한 법률 상담, 언어 강의 무료 등록, 사회 서비스 정보 제공 등
 - 피렌체시는 조명 예술가들과 함께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노란색 조명을 비추어 역사 지구를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예술 협업 진행
 - 도시 곳곳에서 여러 사회단체가 여성들, 특히 노인 여성들에게 미모사 꽃다발을 나눠 주는 시간을 가짐
 - 3월 한 달 동안 공영방송에서 여성에 관한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방송
 - 레스토랑과 카페에서는 미모사 케이크 등 노란색 재료로 요리한 특별한 메뉴 선보임
 - 공휴일에는 여성이 아내이자 엄마, 때로는 딸이라는 다양한 역할을 즐길 수 있도록 가족 문화 행사를 진행

정책 평가와 의의

- 성별과 인종을 넘어 휴머니즘을 유지하려는 시의 노력
 -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여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할 기회
 - 형식적인 기념일을 넘어 고통받는 여성들을 기억하고 다국적 여성을 돌아보는 데에 초점을 둠
 - 여성은 남성의 반대편이나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남성과 서로 보완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을 공유할 기회
 - 여성뿐 아니라 가족,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라는 점에서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



[그림] 이탈리아에서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미모사 꽃(좌)과 특별 메뉴인 미모사 케이크(우)

<https://www.comune.fi.it/comunicati-stampa/8-marzo-giornata-internazionale-della-donna-tante-le-iniziativa-del-comune>

<https://cultura.comune.fi.it/dalle-redazioni/8-marzo-ai-musei>

<https://cultura.comune.fi.it/dalle-redazioni/si-scrive-marzo-si-legge-donna-2024>

<https://www.firenzetoday.it/eventi/festa-donna-firenze-eventi-2024.html>

<https://quartieri.comune.fi.it/dalle-redazioni/festa-della-donna-2024>

<https://www.comune.fi.it/comunicati-stampa/festa-della-donna-2024>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시장의 불공정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격표시제

말레이시아 / 사회·복지

말레이시아 국내통상·생활물가관리부(KPDN)는 라마단과 이드 알 피트르 기간의 물가 안정을 위해 장터 내 불공정 상행위를 방지하는 정책인 ‘오퍼레이션 판타우’를 시행. 이는 부당한 가격 인상을 사전에 억제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라마단 성월의 끝을 쾌적한 축제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함

정책 배경

- 이슬람 5대 종교적 의무인 금식 성월 라마단과 이드 알 피트르
 -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을 의미하는 라마단(Ramadan) 기간에 이슬람교도는 5대 종교적 의무에 따라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함
 - 일몰 이후에는 저녁 식사인 이프타르(Iftar)를 성대하게 하는 식문화가 있어 이 기간에는 바자회(Bazza)¹⁾와 슈퍼마켓 등 소매점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
 - 라마단이 무사히 끝난 것을 감사하며 열리는 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
 - 이드 알 피트르는 라마단 성월의 끝을 기념하는 축제로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만찬을 나누며 금식 계명을 지킨 것을 자축
- 라마단과 이드 알 피트르 기간 물가 안정 대책
 - 상품 및 서비스세의 세율 인상²⁾과 식료품의 가격 상승³⁾에서 영향을 받아 불공정 행위 많이 발생
 - 물가 상승으로 소매업체와 바자회 상인들에 의해 바가지요금, 끼워팔기 등 불공정 관행이 자행되면서 라마단 바자회 불매 운동 확산
 - 이에 공공 거래 질서 확립과 요금 인상 억제로 물가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1) 바자회(bazaar)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말로 공공 또는 사회사업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 벌이는 시장이라는 뜻이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라마단 기간 열리는 일시적인 장터를 통칭하는 단어

2) 말레이시아는 2024년 3월 1일부터 상품 및 서비스세의 세율을 기존 6%에서 8%로 인상. 말레이시아 국립 통신 매체 버나마(Bernama)에 따르면 세율 인상이 식료품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수도권인 끌랑 벨리(Klang Valley) 라마단 바자회의 먹거리 가격이 최대 30% 상승했다고 보도

3) 말레이시아 호커 및 소규모 무역 협회(Malaysian Federation of Hawkers and Petty Traders Association)는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전년 대비 라마단 바자회 물가가 50센(약 150원)~1링깃(약 300원) 상승했다고 발표

정책 내용

- 오퍼레이션 판타우(Ops Pantau)
 - 말레이시아 국내통상·생활물가관리부(KPDN)는 라마단과 이드 알 피트르 기간 동안 오퍼레이션 판타우를 시행
 - 오퍼레이션 판타우는 2021년부터 「무역설명법 2011(Trade Descriptions Act 2011)」에 따라 매년 라마단과 이드 알 피트르 기간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정책
 - 「물가통제 및 폭리 방지법(Price Control and Anti-Profiteering Act 2011)」, 「무게 및 측량법 1972(Weights and Measures Act 1972)」에 의거, 바자회나 소매점의 불공정 상행위를 단속
 -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시 이행, 법정 계량기 사용 여부, 적정가액의 책정과 중량 등을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
 - 부당한 가격 인상을 사전에 억제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쾌적한 축제 분위기 조성
 - 국내통상·생활물가관리부는 슈퍼마켓 등 소매점 출입구에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19개 농축수산물의 가격과 사진을 게시해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
 - 바자회 상인들의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를 단속하고 전자저울의 사각 꼭짓점 수평 관리 등 현장점검을 실시. 특히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도록 가격과 중량 정보를 외부에 명확하게 표시했는지를 집중 점검
 - 시민이 국내통상·생활물가관리부에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 오퍼레이션 판타우 2024 시행 현황
 - 2024년 3월 12일부터 23일까지 오퍼레이션 판타우 2024는 2,200명의 공무 집행관을 동원해 20,854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가격 미표시, 저울 조작 등 8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 이 기간에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는 총 623건에 달함

시사점

- 국내 지역축제 먹거리 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
 - 오퍼레이션 판타우는 상인들의 인식 제고 및 방문객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
 - 최근 벚꽃축제 등 국내 지역축제의 먹거리 장터와 재래시장은 서비스 대비 과도한 요금 등 식품 판매가격 및 품질 논란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림] 오퍼레이션 판타우 (출처: 필자 촬영)

<https://www.businesstoday.com.my/2024/03/14/kpdn-monitors-sale-of-israeli-dates-launches-op-pantau-for-ramadan/>

<https://says.com/my/news/kpdn-warns-ramadan-bazaar-traders-to-display-prices-or-face-rm50-000-to-rm100-000-fine>

https://thesun.my/local_news/ops-pantau-2024-kpdn-seizes-goods-worth-more-than-rm400000-IE12256529

https://thesun.my/local_news/crackdown-on-traders-not-displaying-price-tags-GC12232631

<https://worldofbuzz.com/ramadan-bazaar-vendors-apologise-as-they-have-to-hike-prices-leaving-msians-enraged/>

https://thesun.my/local_news/ops-pantau-2024-kpdn-seizes-goods-worth-more-than-rm400000-IE12256529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4/04/03/ngos-step-up-to-combat-ramadan-food-waste/>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3/04/896764/47610kg-bazaar-food-wasted-daily-nsttv>

https://thesun.my/local_news/addressing-wastage-while-feeding-underprivileged-AF12246868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4/03/20/domestic-trade-ministry-81-tonnes-of-food-beverages-salvaged-through-mysavefood-programme-at-ramadan-bazaars-nationwide/124604>

<https://sdg12hub.org/sdg-12-hub/what-is-sdg-12>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법적 토대 마련

상하이시 외 / 환경·안전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잠행조례」를 발표하여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중국에서 2023년 누적 기준 2,257개의 전력업체가 4억 4,00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거래하였고 거래총액은 249억 위안에 달하였음.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1년에 도입한 중국은 2021년 7월에 지방 8곳에서 운영하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한데 모아 상하이에 통합 거래소를 출범시켰고,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 토대를 마련함. 앞으로 중국 내 관련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거래의 규범화가 촉진될 전망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잠행조례」 시행

- 중국의 행정부 직인 국무원은 2월 말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잠행조례(碳排放權交易管理暫行條例, 이하 ‘관리잠행조례’)」를 발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관리잠행조례」는 총 3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정부 주관부처와 지방정부의 탄소배출권 관리 책임,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임
 - 「관리잠행조례」는 중앙 및 지방정부 생태환경부처의 관리감독 책임, 중점 탄소배출 기업이나 기관의 보고 의무 등을 명시하고,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함
 - 「관리잠행조례」는 시행 전에 설립한 지방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행 후에는 지방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신규 설립을 금지토록 함
-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은 6대 온실가스를 일정 기간 배출하도록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세계 각국에 부여하는 권리임
 - 6대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정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₆)이 해당
 -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부터 발효. 비준 당사국은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6대 온실가스를 해마다 UNFCCC가 부여한 총량 안에서만 배출할 수 있음
-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는 배출총량거래 원칙에 따라 지역 사이, 기업 사이에서 배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권을 교환하고 구매하는 시장 거래 시스템임

- 현재 각 국가와 지역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독자적인 시스템에 따라 운영 중인데, 자국과 지역의 여건, 산업발전 현황, 에너지 구조 등에 따라 설계되어 있음
 - 대부분 국가는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여 지역 사이, 기업 사이 배출권을 교환하도록 하면서 자국의 배출총량을 관리하고 있음



[그림]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출처: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소)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소 출범에 이어 법적 토대 마련

-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1년에 도입하여 2013년부터 선전시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상하이시, 베이징시, 광저우시, 톈진시, 후베이성, 충칭시, 푸젠성 등에 8개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순차적으로 개소하여 운영함
- 이를 통해 2019년까지 각 지역의 탄소배출권 할당량 배분, 시스템 등록, 시장 운영 테스트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고, 2021년까지는 탄소배출권의 가격 단위, 최소 거래 신고량, 최소 변동 신고량, 탄소배출 할당량 거래 등을 규범화하는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통합 거래소의 출범을 대비함
 - 그 결과로 2021년 7월에 중국의 경제수도 격인 상하이에 전국 통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출범함
 - 2023년 누적 기준 전국 통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2,257개의 전력업체가 4억 4,00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거래하였고 거래총액은 249억 위안(약 4조 5,970억 원)에 달함

- 「관리잡행조례」는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의 시장체제 운영에 대해서 처음으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이러한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 앞으로 중국 내 관련 시장의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고 거래의 규범화를 촉진하며 대내외의 거래를 촉진할 수 있음
 - 앞으로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8대 산업인 비색금속,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화공, 제지, 항공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음
 - 현재 중국의 탄소 규제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전력 부문에만 적용되고 있음
 - 최근에는 탄소 상쇄배출권(Chin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CER)의 신규 프로젝트 등록 재개 및 발행이 속도를 내면서 대내외적으로 탄소시장이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음
 - 탄소 상쇄배출권은 기업이나 기관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얻은 배출권으로, 의무감축에 해당되는 배출권(Chinese Emission Allowance, CEA)과는 대조되는 개념임. 중국 관계 당국은 2017년 탄소 상쇄배출권의 프로젝트 등록을 중단하였으나 지난 1월에 심사 프로젝트의 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올해 내 발행을 재개할 예정임
 - 따라서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의 법적 토대와 시장체제 운영시스템을 모두 갖추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음
 - 한국의 경우는 탄소가격 제정을 위한 국제적 동향에 한국이 뒤처진다는 문제의식을 담아 지난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25년부터 탄소 상쇄배출권의 자유로운 거래가 예정되어 있음

<https://baijiahao.baidu.com/s?id=1787762350830585272>

<http://www.xinhuanet.com/info/20240229/33ae8f8c20eb4dfbb27065fcad06ca39/c.html>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402/content_6930137.htm

<http://www.tanpaifang.com>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에너지 효율 낮은 모든 건물에 리모델링 선언한 파리시

프랑스 파리시 / 도시계획·주택

파리시는 2023년 새로운 기후계획을 발표하고 파리 시내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건물 개선정책을 제시. 에너지 효율이 낮은 현재의 모든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한 파리시는 우선 파리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개별 공동건물의 자발적 개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

사업의 개요

- 파리지역은 탄소배출의 72%가 건물 부문이며 그 중 주거용지에서의 배출이 약 절반을 차지함
- 파리시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의 약 75%가 공동주택이며 그 중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임
-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에 대한 규제를 2023년부터 적용, 2025년부터 에너지 등급 최하위(G등급, 즉 에너지 소비 420kwh/m² 이상)인 경우 임대를 금지함
- 파리시는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기존의 모든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 파리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약 4분의 1 수준이며 매년 5,000세대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 예정

주요 내용

- 파리시는 2007년에 처음 채택한 기후 계획(Plan Climat, Air, Énergie)에 따라 200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개선정책을 진행. 2023년 통합·업데이트되어 발표된 기후 계획(Plan Climat)에 따르면, 2050년까지 파리의 기존 건물을 모두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2004년 대비 50% 감소를 목표로 제시
- 파리 시내 공간의 90%는 이미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 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 파리지 공공임대주택들은 여러 시기에 건설되어 그 양식과 모습이 다양하고 임차인 규모도 10세대 남짓에서 수백 세대에 이릅니다. 따라서 개선사업 시 건물과 임차인들의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은 에너지효율등급을 개선하는 단열공사가 주요한 부분이지만, 더불어 폭염 시 열섬현상을 막기 위한 차열공사와 녹지공간 마련,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자전거 주차장 확보 등 현재 대두되는 다양한 환경 문제와 주민들의 수요를 사업에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음



[그림] 파리지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 현장

(출처: <https://www.paris.fr/pages/coproprietes-5-000-euros-pour-faire-realiser-un-audit-de-renovation-energetique-6644>)

- 파리시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약 25% 수준에서 2035년까지 약 40%까지 높일 계획. 이 과정에서 건설로 인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
 - 사무실 건물 중 미사용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변경
 - 기존 건물에 층수 늘리기
 -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저테크 활용
 - 변형이 가능한 모듈식 장비를 이용
 - 건물 자재 선택 시 저탄소 배출 제품을 사용하거나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

- 파리는 2030년부터 매년 4만 호의 개별 공동주택 개선 계획 목표도 설정. 파리시 공동주택 소유자의 사업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원책을 만들고 전담조직(APC: L'Agence Parisienne du Climat)을 설치하였으며 관련 정보(특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 제공, 도시계획 허가 요청, 믿을 수 있는 공사감독관 선임 선정, 주민들의 의식 제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
- 파리는 또한 주택개선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개별 건물주에게 부동산세를 3년간(공사 기간을 고려) 감면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파리는 공공건물에 대한 개선사업도 추진 중. 14개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 학교 건물과 관련하여 매년 30개의 학교와 10개의 영·유아원 개선 예정

결과

-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의 결과로 파리시 관리 공공임대주택 중 6만 호가 혜택을 봄
- 파리 시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약 6억 5,800만 유로를 지원하였고 그 결과 전체 공공임대주택 주택개선사업의 26%가 도움을 받았으며 약 28억 유로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짐
- 개선사업 시 소요비용은 각 건물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나 파리시 운영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세대당 약 4,500~9,000유로가 소비될 것이라 예상됨. 이로 인한 에너지 절감 비용은 연평균 400유로 정도로 나타남
- 공공임대 개선사업으로 에너지 사용은 평균 54%를 절감했고 온실가스 배출은 약 56%를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됨

정책 의미

- 파리는 공공임대주택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임차인의 생활의 질과 편리성을 높이면서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부동산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 개별 공동주택에서도 에너지효율개선에 관련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을 이용하도록 도와 파리시 전체적으로도 주택개선 효과가 이어지도록 노력

- 그동안 이루어진 공동임대주택 개선정책의 효과를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수치상으로 제시하여 개별 주택보유자의 주택개선정책 참여에 도움
- 공공임대건물 리모델링 시 전문가와 입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사업을 설계하여 공사 후 만족도를 높임
- 새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새로운 친환경 자재와 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관련 회사의 발굴이나 새로운 산업의 확대에도 기여

https://cdn.paris.fr/paris/2024/02/09/projetplanclimatparis2024-2030_adopte-07VX.pdf

<https://www.iledefrance.fr/aides-et-appels-a-projets/ilots-de-fraicheur>

<https://www.paris.fr/pages/beneficier-d-eco-renovons-paris-c-est-comme-si-nous-avons-un-nouvel-immeuble-maintenant-26735>

<https://www.paris.fr/pages/coproprietes-5-000-euros-pour-faire-realiser-un-audit-de-renovation-energetique-6644>

<https://www.paris.fr/pages/la-renovation-des-logements-sociaux-un-enjeu-social-et-environnemental-pour-paris-26116>

<https://www.paris.fr/pages/rehabilitation-de-logements-sociaux-trois-chantiers-pour-un-meme-objectif-climatique-26343>

정연주 통신원, yonjoo1004@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573호

발행인 오균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4년 5월 13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송도숙(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이 보고서의 내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